

데 오랜 동안의 放置와 雨露는 免했으나 石材가 沙質이 많은 花崗石이 고 各部에 磨損이 甚한 편이어서 彫刻이 太彫로 보인다. 頭部가 切斷되 었으나 現在는 頸部를 시멘트로 補強하였다. 相好는 긴(長)편이며 兩眉眼과 鼻樑、口唇等 各部가 磨滅로 鮮明치 않다. 兩耳는 길게 늘어졌 으며 三道가 있는데 「시멘트」補強의 肩上까지 미처져서 端雅한 姿勢를 그릇치고 있다. 머리에 는 寶冠을 쓰고 있으나 그 彫飾이 刻明치 않고 冠帶에서 兩耳後使으로 내려진 一條의 帶紋이 어깨 위에 걸쳐지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兩腕에 걸쳐 흘렀고 前前은 圓弧의 衣帶가 보이는데 兩脚以下가 埋沒되어 下部를 알 수 없은은 遺憾된 일이다. 手印은 右手를 胸前에 들어 外掌하고 左手는 臍前에 올려 內掌하고 있다. 圓滿치 못한 相好나 各部 衣紋의 手法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前記石塔과 同代인 高麗中葉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cm) : : : 現全高一二五 頭高三七 肩幅三六 胸幅三〇 耳長二六 冠帶幅五・七이다.

〔註〕「平谷里部落ノ北方田中ニ在リ石塔一箇アリ四種ニシテ高サ十二尺、基部縱橫各五尺、石佛一箇高サ三尺、頭部破損セリ」라 있는데 여기의 四重石塔은 三層의 誤認이며 이때에도 이미 佛頭는 切斷되어 있었 던 것이다.

洪城 大坪里 支石墓 調査

李 殷 昌

一 忠淸南道 西海岸地帶의 支石墓와 錦江流域의 支石墓를 調査한 바 있 는데 앞서 이들 支石墓를 本誌에 ① 紹介한 바 있다. 洪城郡 洪東面 大坪里 ② 支石墓도 이와 같이 目錄만을 略報하고 그 詳細한 報告를 後日 로 믿어 왔는데 이는 形態와 構造가 모두 典型的인 樣式을 하고 있어 重要한 것의 하나로 생각되므로 이에 紹介하고자 한다.

二

廣川邑에서 靑陽으로 가는 道路로 約 3km 東行하면 바로 洪東面 大坪里 이니 支石墓는 이곳 丘陵이 南走하는 끝에 傾斜가 緩慢한 道路邊 에 所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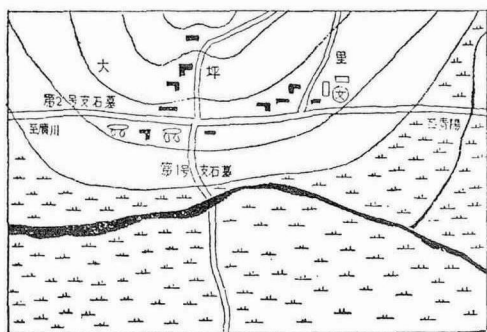
支石墓의 地域은 盆地를 形成하고 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北쪽 높은 산에서 盆地中央으로 낮은 丘陵이 南走하다가 끝나는 南端에 傾斜를 이루었으니 이곳에는 道路가 東西로 通하고 人家가 集落되어 있음 즉 이 道路南邊 人家 사이에 支石墓 二基가 東西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支石墓의 東西로는 平坦한 低地帶로 繼續하다가 산으로 막히고 南으로는 河川을 隔하여 亦是 平坦한 低地帶로 나다가 烏樓山 高峰이 峻拔하였으며, 支石墓 바로 앞에 흐르는 前記 河川이 西南流하여 擴川邑 ③ 甓岩里로 港灣에서 海潮와 合水한다. 이 支石墓群의 東側의 것을 第一號 支石墓라 하고 西側의 것을 第二號 支石墓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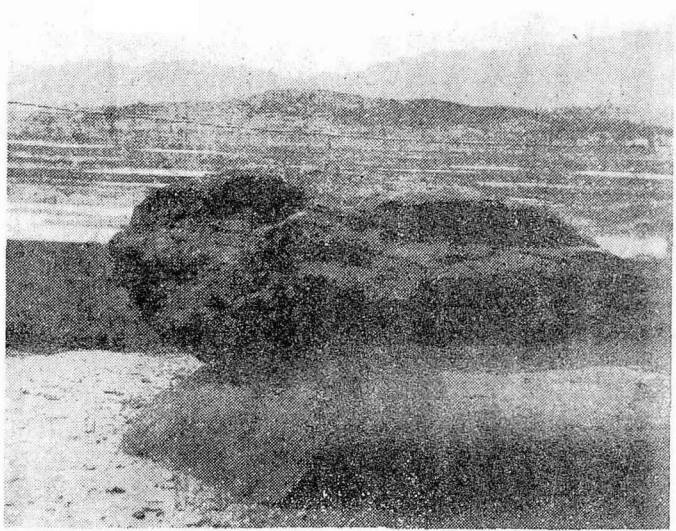
三

洪城 大坪里 支石墓는 第一號 支石墓와 第二號 支石墓等 二基뿐으로 그 調査된 形態와 構造는 다음과 같다.

(1) 第一號 支石墓

第一號 支石墓는 道路의 南邊 낮은 民家の 마당에 있으니 花崗岩으로 된 撐石과 支石이 갖춰져 있고 完全히 地上에 露出되어 있다. 撐石은 圓盤形인 바 支石위에 卓子式으로 놓여 있는데 北端部가 破缺된 것으로 推測된다. 이 部落의 父老의 말에 依하면 過去에 撐石을 破壞한 일이 있었다 하는데 元來는 撐石南北으로 若干 길게 되었던 것으로 그 長軸을 南北으로 두고 있다. 支石은 撐石의 長軸 方向으로 南





北二個가 撐石을 埋 받고 있다. 現今은 이 撐石이 倒壞되어 原形과는 다르지만 元來는 「二」字形^④으로 整然하게 配置된 撐石이였을 것이다.

以上 記述한 第一號 撐石墓는 圓盤形 自然岩으로 된 撐石을 枕形 自然岩을 「二」字形으로 配置된 撐石으로 埋받고 있는 典型的인 北方式 撐石墓이며 現存하는 數値는 다음과 같다.

① 撐石(蓋石)
南北二二〇cm(北端部가 約五〇cm程度破缺됨)
東西二五〇cm
高(厚)一〇〇cm
圓盤形自然岩

② 撐石(足石)
南等것:長一三〇cm
幅三〇cm
北等것:長一三〇cm
幅六五cm
高三〇cm
枕形自然岩
(「二」字形配置)

(2) 第二號 撐石墓

第一號 撐石墓에서 西側으로 約二〇m 地點인 道路옆에 있는데 그 大部分이 埋沒되고 撐石上部와 南端部만이 露出되어 있다.

撐石은 南北一二〇cm 東西一九〇cm 高(厚)九五cm로 大略 不整形 四角盤石인 바 亦是 前者와 같이 그 長軸을 南北으로 두었다. 撐石은 南等

의 것이 長一二〇cm·幅四〇cm 高四五cm로 枕形石塊이고 北쪽의 것은 埋沒로 보이지 않으나 南쪽 것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第二號 撐石墓도 第一號 撐石墓와 같이 盤石形의 撐石을 「二」字形으로 配置된 撐石이 埋받고 있는 典型的인 北方式 撐石墓로 推定된다.

四

大坪里 撐石墓는 既往에 調査報告된 廣川邑 甕岩里 撐石墓地帶와 隣接한 곳에 있으니 大坪里 撐石墓와 甕岩里 撐石墓와는 相互 關聯되는 同一地域의 撐石墓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大坪里 撐石墓는 西海岸地帶의 撐石墓에 屬하는 것으로 곧 瑞山仁巨面 撐石墓群^⑤·甕岩里 撐石墓群·保寧寬倉里 撐石墓群^⑥·保寧珠山面 撐石墓群^⑦·舒川庇仁面 撐石墓^⑧·舒川鍾川面 撐石墓等^⑨속에 들어 있는 分布라 하겠다. 이들 西海岸地帶에 分布된 諸 撐石墓는 大部分 南方式 撐石墓인데 이 南方式 撐石墓群속에 上述한 大坪里 撐石墓와 같은 典型的인 北方式 撐石墓가 並存하고 있는 點은 注目되는 바나. 西海岸地帶에 分布된 撐石墓群에는 舒川鍾川面 撐石墓 가운데 「G」^⑩는 北方式이라고 報告되었고 錦江流域에 分布된 撐石墓群에도 大部分 南方式 撐石墓인데 論山陽村面 撐石墓^⑪가 北方式이며 今般 大坪里 撐石墓가 北方式이니 이것으로 忠南地方의 南方式 撐石墓群속에 北方式 撐石墓가 並存한 狀態를 알 수 있고 그 撐石墓의 分布特色을 짐작할 수 있다.

註

- ① 拙稿「湖西地方의 先史遺跡調査」(考古美術第四卷第八號)
- ② 金元龍著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洪城郡」條 參照
- ③ 三上次男著 滿鮮原始墳墓の研究「朝鮮半島」における 撐石墓^④條
- ④ 北方式 撐石墓의 撐石構造는 原則적으로 四枚板石으로 口字形의 箱形石室을 形成한 것이 典型的인 樣式이라 論及되어 왔는데 이러한 例로는 平安南道의 龍岡郡石泉山 撐石墓·大同郡美林里 撐石墓等과 黃海道의 安岳郡 龍順面長山里 撐石墓等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撐石墓에 있어서 口字形보다 口字形 또는 「二」字形의 撐石例가 훨씬 많으니 곧 「二」字形의 例로는 黃海道 殷栗郡 北部面 雲山里 撐石墓·江原道 春川泉田里 撐石墓等을 들 수 있고 「二」字形의 例로는 各地方에 그 類例가 許多하며 湖西地方의 北方式 撐石墓도 이에 屬하는 것이 大

部分이다. 그런데 ① ㄷ字形 또는 一字形으로 된 支石(足石)構造는 元來 그런 것이 아니라, 盜掘者들이 口字形支石을 一面乃至二面을 破壞開放한 것이라고도 하고 ② 또는 多數한 ㄷ字形·一字形의 支石構造의 支石臺가 모두 前記盜掘者의 所行이라고 斷言할 수 없는 것이며 元來의 形態라고主張하는 등 여러 學者의 論說이 있다.筆者는 여러 곳의 支石臺를 調査한 經驗을 通하여 後者를 追從한다.

- ⑤ 拙稿「瑞山仁旨面先史遺跡調査報告」(古文化 第三輯)
- ⑥ 金元龍著 韓國史前遺跡遺物地名表「保寧郡」條
- ⑦ 拙稿「湖西地方의 先史遺跡調査」(考古美術 第四卷 第八號)
- ⑧ 三上次男 前掲書
- ⑨ 三上次男 前掲書
- ⑩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昭和十七年度)
- ⑪ 金元龍「論山陽村面の支石墓群」(考古美術 第一卷 第三號)

求禮郡 馬山面 상사돌리石塔

申 榮 勳

一九六一年秋 華嚴寺附近 遺蹟들을 踏査하였다. 華嚴寺洞口 馬山面에서 遺蹟을 향하고 서면 오른손 편으로 셋길이가 있다. 九折羊腸草路가 山麓으로 뻗었는데 길 끝에 貯水池가 있고 그 앞에 상사돌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貯水池 뒤편 松林사이 李氏宅齊室(?)이라는 瓦家가 한채 있고 그집 오른쪽 구석으로 一間斗屋이 보인다. 쪽문을 열고 무심히 들어서면 집에 가득찬 石造如來坐像과 맞부딪친다. 完形에 가까운 蓮華臺座에 結跏趺坐한 當當한 體軀의 부처님이 降魔觸地印을 한채 근엄하게 굽어 본다. 이 집 앞에 낮고 막하고柔弱하게 보이는 三層石塔(花崗石製) 一基가 놓였다. (如來像·石塔原位置는 確認하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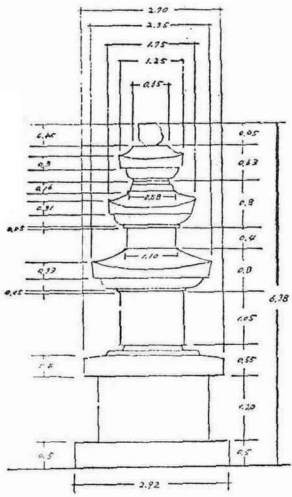
現存하는 塔形이 完存인지는 分明치 않으나 地上에는 甲石形의 板石

이 있고 그 위로 基壇 한 단이 놓였다. 壁石은 四枚石을 어긋매씩 놓았고 그 위로 一枚의 甲石이 놓였는데 倒置된 듯하다. 一塊석의 初層塔身·同蓋石과 二層의 身과 蓋 그리고 三層蓋石이 있다. 그 사이에 놓인 三層塔身은 適當치 못한 部材가 硃繪인 듯하다. 三層蓋石위의 相輪部는 없�졌고 擦柱孔만 남았는데 누군가 거기에 조고만 돌을 올려 놓았다. 石塔을 쳐보면 羅代以來 通式으로 傳하여지는 樣式이 아닌 異質의 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塔身에 隅柱(Angle Post)가 없고 蓋石처마 밑 層級받침이 省略되고 그部分을 興法寺廉居和尚塔類의 처마 밑처럼 불림 있는 曲面으로 處理하였다. (挿圖參照) 曲面下段에 臺形薄帶를 두어 塔身을 받쳐하는 力點을 둔 것도 注目된다.

그 蓋石의 形像은 井邑隱仙里三層石塔처럼 直線的이지 않고 泉谷寺址七層石塔같이 檐裡를 斜面한 것도 아니며 月南寺址塔의 軒下處理와 도 다르게 多分히 曲線의이다. 이 蓋石은 百濟系類形의 殘影을 가진 마치 庇仁五層塔·長殿里三層塔 등과 그 始源인 定林寺址塔과 흡사한 점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塔蓋의 그 날선한 線은 이 塔에서 찾을 수 없고 落水面같은 곳은 高麗期 他地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鈍重한 灣曲線을 가진 塔과 비슷하다. 轉角部가 두드러지게 強調된 것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檐裡曲面도 前記 三塔처럼 긴장하여 단단히 오르러진 形象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이하여 저서 퍼드러진 그런 모습을 하였다. 蓋下面

가장자리 조고만 간 격만 남겨 놓고는 全面을 이 曲面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밑 臺狀剝出部도 자신 있는 處理를 하지 못하고 흥내만 낸 듯 슬쩍 모



求禮 馬山面 上사돌리 五塔